

2009 Port Messe Nagoya를 통해 본 일본 그린자동차 산업

- 일본 나고야

- ▶ 개최 기간 : 2009.11.11~11.14
- ▶ 개최 장소 : 일본 나고야
- ▶ 참가기업 수 : 약 340개
- ▶ 참관객 수 : 44,000명
- ▶ 홈페이지 : www.u-net.city.nagoya.jp
- ▶ 전시 분야 : 각종 친환경 차량 관련 용품

아이치현(愛知県)을 중심으로 한 일본 중부지역은 세계 최대 자동차메이커인 도요타자동차를 중심으로 덴소, 아이신 정기, 도요타 방직, 도요타 합성 등 관련계열사가 집중되어 있는 명실상부한 일본 자동차 제조업의 메카이다. 중부지방은 최근 세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주력 생산지이기도 하고, 포트 메세 나고야에는 각종 친환경 자동차부품 기업이 다수 참가하고 있는 점에서 최신 환경, 안전관련 기술을 맛 볼 수 있는 주요 전시회로 주목받고 있다.

포트메세나고야는 나고야시, 아이치현 등 지자체와 지역행정단체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2006년부터 개최되고 있는데, 매년 참관객이 4만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전시회로 성장하였다. 11월 11~14일 개최된 2009년 전시회에는 극심한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340개사 이상이 참가하고 4만4천명이 넘는 참관객이 방문하여 지역 산업계의 그린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었다.

내년에는 나고야에서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 : Conference Of the Parties)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그린산업,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전거에도 적용된 하이브리드 기술

이번 전시회에서는 하이브리드 차량 시승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친환경 자동차 관련 기술과 제품이 전시되었는데, 하이브리드 기술을 자전거에 활용한 '전동 어시스트(電動 Assist) 자전거' 도 선을 보여서 하이브리드기술 본 고장 다운 면모를 보였다. 일본에서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전거가 널리 보급되어 있는데, 일본의 도로 환경은 언덕이 많고 지

형의 고저가 심한 편이어서 전동 어시스트 자전거는 이미 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다. 상기 제품은 그 중에서도 하이엔드 모델 군으로 디자인과 성능으로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도료기술로 에너지절감, 환경보호, 안전까지

지나는 방문객의 시선을 잡았던 또 하나의 코너는 바로 단열도료를 이용한 최신 코팅제품이었다. 단열도로 제품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최근 관련규제 강화에 따라 에너지 절감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비교적 손쉬운 에너지절감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번에 전시된 단열도로 제품은 유리에 코팅을 해서 적외선을 85%, 자외선을 99% 차단하면서도 유리의 투명도를 높일 수 있는 제품이며서 외부디스플레이 등 유리벽을 갖는 다양한 산업에서 실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또 일반 차량에 도료제품을 코팅하면 차량표면의 발수(撥水) 특성을 높일 수도 있어서 우천 시 차량안전성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차량업계 관계자로 부터도 큰 관심을 모으기도 하였다.

녹색 벽 등 다양한 아이디어 제품도 선보여

일본 중부지역 특유의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개최된 이 전시회에는 이 외에도 종이 소재의 대량화물 수송용 팔레트(Pallet)와 빌딩벽면, 실내공간을 녹화(綠化)하는 녹색 벽 등 다양한 아이디어 제품이 전시되었다. 포트 메세나고야는 내년도에는 세계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10)가 개최되는 시기에 맞춰 10월 27일에서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어서 향후 일본 중부지역 최대 전시회를 넘어서 일본의 그린산업을 대표하는 잠재력 높은 전시회로 중요도를 더해갈 것으로 보인다. [L](#)

1.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의 주요안건인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한 홍보전시관
2. Mountain Keepers Trial이 개발한 전동어시스트 자전거
3. 간단한 코팅으로 냉난방 비용절감이 가능한 다이와 공업의 단열도로 제품
4. 차량을 코팅한 경우(좌)와 코팅하지 않은 경우(우)를 구분한 발수(撥水) 특성개선 실험
- 5, 6. 빌딩 벽면, 실내 등의 녹화(綠化)시공 전문기업의 부스
7. 목재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종이소재 팔레트 에코보드

